

#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선행연구물 내용분석

## Exploratory study on the Moral Injury among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Studies on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심우찬\*, 이순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Woochan Shim(shimw@dju.kr)\*, Soon Min Lee(smlee2@sjcu.ac.kr)\*\*

### 요약

본 연구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비정신병리적 접근으로의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을 탈북여성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적용시키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KISS와 DBpia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13일까지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질적 연구물 중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포함하는 연구물을 검색 했다. 최종 선정된 총 51개의 질적 연구물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로는 적응경험, 어머니로서의 경험, 북한 체제와 전쟁에 대한 경험, 일/직업/고용 경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극복 및 성장과 회복탄력성의 경험, 중국에서의 삶에 관한 경험,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경험, 심리적 불안함을 치료하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적 손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에 관한 단어는 총 260회, 존재론적 믿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단어는 총 82회, 인지의 변화와 관련 단어들이 총 71회, 그리고 행동의 변화와 관련 표현이 총 21회 나타났다. 셋째, 도덕적 손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맥락으로 크게 ‘정체성 부정’과 ‘가족 해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도덕적 손상을 일으킬 만한 맥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 반대되는 사례들 속에서 ‘정체성 재구성’이라는 맥락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탈북여성이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예방 되는, 혹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탈북여성 | 도덕적 손상 | 정체성 | 죄책감 | 질적 내용분석 |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applying the concept of moral injury in re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psychological trauma and are struggling with adjusting in their everyday lives. The database KISS and DBpia were used to search for academic peer-reviewed articles published before August 13th in 2017, using ‘female or women North Korean,’ ‘female or women relocated North Korean,’ and ‘female or women North Korean defector’ as keywords. In total 51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for content analysis and the result were the following. First, listing from the most often occurring study topic to the least occurring topic in order: post-defection adjustment related, mothering experience,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gime and Korean War, work or job or employment related, recovering from psychological trauma as well as growth and resilience related, experiences in China, trauma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xiety treatment process and effects. Second, words related to psychological aspect of moral injury appeared 260 times in 51 selected studies, changes in the existential belief appeared 82 times, cognitive aspects of moral injury appeared 71 times, and behavioral aspects 21 times. Third, two main contexts emerged to be the antecedent that led to moral injury and they were ‘identity denial’ and ‘dismantled family.’ In attempts to find opposite cases or stories where aspects of moral injury were not found despite the existence of its antecedents and it was ‘identity restructuring.’ Based on the finding, practice implications that could help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prevent or recover from moral injury were suggested.

■ keyword : |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 Moral Injury | Identity | Guilt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3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3월 20일

수정일자 : 2018년 03월 20일

교신저자 : 이순민, e-mail : smlee2@sjcu.ac.kr

## I. 서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입국현황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연간 천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연간 2천명을 넘어섰다. 탈북민의 성별 입국 비율에 있어서는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입국현황 2017년 자료[1]에 의하면,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98년에 12%로 시작하여 매 해 증가하더니 17년 12월 기준으로는 83%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탈북여성은 17년 12월 기준 22,346명, 남성은 8,993명으로 총 31,339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탈북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젠더중심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몇 몇 되지 않는 탈북여성에 관한 연구 중 하나로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2]이 탈북민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탈북여성의 특수성을 정리한 연구가 있다. 이영선 외[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유린의 경험, 특히 인신매매나 매춘과 같은 여성성의 유린을 경험했으며, 입국 후 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결혼, 출산, 자녀양육, 시부모 봉양 등과 같은 전통적 성역할과 직결된 이슈들로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떼어 놓고 오게 되면서 죄책감과 심리적인 부담을 경험하거나 동반 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부모 가정을 이루면서 경제적인 취약함을 경험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이렇듯 2010년까지의 탈북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발표된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영선 외[2]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11년부터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을 검토해 보면 여전히 탈북과정 중 외상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성격특성[3][4]이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5-8] 등 심리 상태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탈북여성을 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후 PTSD)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9-12]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12] 등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여전히 탈북 과정을 심리적 외상으로 바라보고 그 결과를 탈북여성 개인의 정신 병리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탈북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복감을 느끼기 보다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을 모두 탈북과정 중 외상으로 인한 PTSD나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병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탈북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병리 외에 그들의 지역사회에의 적응 및 통합, 그리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부적응 반응을 개인의 정신병리로 국한하여 조명하고 개입하는데 대한 비효과성과 탈맥락성이라는 한계를 비판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함께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13]. 이 개념은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는 것처럼,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우리의 신념, 믿음, 도덕성과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의미한다. 탈북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여성성의 유린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신뢰 상실이나 제 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떼어 놓은 후 느끼는 죄책감 등은 신념, 믿음, 도덕성과 가치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험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탈북과 한국 입국 및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개인의 정신 병리에 국한하여 탐색한 연구와는 다른 각도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질적 연구물의 내용분석을 통해 도덕적 손상의 근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도덕적 손상(Moral Injury)은 1990년대 처음 미국의

임상 정신과의사 Shay[14][15]에 의해 발표된 개념으로 전쟁과 같이 위험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권위자가 부도덕한 혹은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 이 개념은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거나 그 상황을 막지 못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개념이 확대되었고[16], 이에 Shay 또한 굳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권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하는 당사자 또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개념화했다[15]. 결국 도덕적 손상이란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도덕적 손상의 결과로 경험되는 심리적 증상에는 우울, 불안,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증상은 자기 증오와 비난의 인식과 연결되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며, 이러한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변화는 위축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하는 존재론적 믿음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16][17].

국외문헌에서는 도덕적 손상의 개념을 전쟁 참전용사에게 처음 적용하여 전쟁 트라우마에 관련된 증상에 대한 개념을 PTSD와 같은 개인의 정신병리 이외의 사회맥락적 접근을 강구하는데 집중해 왔다[15]. 점차 참전용사의 가족구성원으로 도덕적 손상에 관한 연구가 확대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군인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적용하여 트라우마 이후의 적응 상 어려움을 사회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의 학교 현장에서 부정(injustice)과 부패의 소지가 있을 때, 그러한 체계에 속해 있는 교사들이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부도덕한 일에 가담하면서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18]. Tillman[19]은 자살한 부모의 자녀들 중 도덕적 손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Shay[15]가 언급한 바와 같이 권위자에 의한 배신이 도덕적 손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적용했을 때, 아이들에게 있어 제 1차 권위자인 부모의 자살은 끝없는 사랑과 희망과 삶의 기본 가치의 원천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

하며, 그러므로 도덕적 손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Kleinman[20]은 인도주의적 구호 요원과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생존자들에게서도 도덕적 손상의 현상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대인 생체실험에 가담한 나치 의사들 또한 죄책감과 더불어 부도덕한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 그리고 감정의 마비현상과 복잡한 형태의 자기 파괴 현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이 도덕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라고 최근 발표된 도덕적 손상에 관한 문헌고찰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21].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과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모두 스스로, 그리고 상대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도덕적 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23]. 국내의 경우는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범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물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한 결과, 죄책감, 우울, 분노 등과 같은 범국민적 부적응 반응들이 PTSD라는 개인의 정신 병리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정경유착이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원인에 의해 수많은 죄 없는 어린 희생자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도덕적 손상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 맥락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13].

지금까지 국내외문헌에 나타난 도덕적 손상의 적용 대상을 검토해 보았을 때, 특히 탈북여성의 경우는 탈북에서부터 남한 입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특히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도덕적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중국, 대만 등 제 3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그들이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에 의해 인권유린을 경험하는 일이 많다고 보고되었다[24]. 예를 들어 인신매매[25-27], 매매혼과 그 이후 남편의 폭력[26][28], 그리고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폭행, 강제노동 등을 경험했다[29-32]는 근거는 지금까지 다수의 실증연구물들에서 언급된 바 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하는 탈북의 과정으로 인한 부적응은 PTSD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죽을 고비 이외에 탈북민들이 탈북 전후로 직면하는 많은 현상은

정신병리로 진단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간 북한 정부가 북한 외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숨겨 왔는지 그리고 거짓된 정보로 그들을 속여 왔는지를 인지하게 되면서 느끼는 배신감[33], 그로 인한 혼란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PTSD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본국에서는 불법 월경자라고 그 가족이나 친척까지 핍박을 받고, 한국에서는 간첩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평생 복지 수혜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당하는 등, 어느 사회에서도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중 이등 시민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분노와 정체성 혼란, 혹은 후회와 죄책감 등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결코 개인의 정신병리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탈북여성에 대한 질적 선행연구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도덕적 손상의 근거 및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북여성의 도덕적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 또한 제언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추출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선행연구물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실증연구물로 한정되었으며, 사회과학연구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KISS와 DBpia를 사용하여 추출했다. 탈북여성에 관한 실증연구물을 검색하기 위해 ‘탈북 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활용하여 2017년 8월 13일까지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KISS는 189개, DBpia는 117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본 연구방법인 질적내용분석에 적절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서술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은 양적연구물을 모두 제외하고 질적연구물 혹은 질적연구를 포함하는 통합연구물만 선별하고, 두 데이터베이스에 중복되는 논문을 걸러낸 결과 KISS 28개와 DBpia 23개의 선행연구물이 추출되었다. 총 51개의 선행연구물

[25-27][30-77]이 본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탈북여성에 관한 질적 연구물은 참고문헌에 별도로 표기했다.

####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Hsieh와 Shannon[75]이 체계화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사용했다. 내용분석은 질적 자료인 단어 혹은 문구의 수와 빈도 등을 측정하는 양적접근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은 수와 빈도를 넘어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범주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현상의 줄거리와 규칙을 찾아내는 해석의 과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34]. 내용분석에는 전통적 접근(conventional), 연역적 접근(directed), 그리고 병합적 접근(summative)이라는 세 종류의 분석방법이 있다. 그 중 전통적 접근은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가 협소하고 이론이 존재하지 않아 현상에 대한 묘사에 목적을 두는 경우 사용되므로 질적 자료를 접하기 전 그 어떠한 분석의 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접하고, 그 안에서 줄거리와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연역적 접근은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가 존재하고 이론이 있는 경우, 그 기존 이론적 틀을 확인하거나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손상이라는 기존 개념의 틀을 1차 분석의 틀로 사용되던 선행연구물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손상과 회복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개방코딩을 병행하는 병합적 접근을 사용하기로 한다.

도덕적 손상과 회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덕적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표 1]과 같이 범주화하여 정리 하였다.

표 1. 도덕적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된 현상

범주	하위 범주
감정변화	우울, 슬픔, 불안, 짜증, 분노
인지변화	죄책감, 부끄러움, 자기 증오, 자책
행동변화	폭력적, 반사회적, 위축, 자기 고립, 자기 파괴
존재론적 믿음변화	신앙, 믿음, 도덕성, 삶의 의미 등을 잃고 혼란에 빠짐; 운명론적이 됨

내용분석의 1단계는 도덕적 손상의 개념을 기본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다. 즉 도덕적 손상 그리고 회복과 관련이 있는 하위 범주들을 주제로 사용하여 선행 연구물의 결과 서술 부분에 이러한 주제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분석의 2단계는 도덕적손상 그리고 회복 현상의 주된 키워드가 등장한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맥락, 경험 혹은 현상의 줄거리와 규칙을 범주화하는 작업이었다. 1단계에서 관련 주제어가 발견되지 않았던 선행연구물의 결과부분도 모두 포함하여 도덕적 손상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도덕적 손상이 있을 법한 불법 혹은 비도덕적인 상황에서 예측과는 전혀 다른 서술이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하는 도덕적 손상과 정반대되는 사례 찾기에 집중했다.

내용분석은 연구대상인 선행 질적 연구물의 결과에 포함된 탈북 여성들의 직접 인용문이 주축이 되었으나, 그 인용문 전후에 서술된 연구자의 해석 또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인 51개의 질적 연구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들의 수는 총 384명이다. 동일한 연구자에 의한 연구물들 중에서 참여자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논문 여성 참여자의 수만 합산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연구에 참여한 경우는 남성 참여자들의 수를 제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정량적 분석결과

질적 선행연구물을 출판연도별로 나타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여성에 관한 질적연구물은 2003년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는 탈북여성이 남성의 비율을 넘어서 전체 55%가 된 시기가 2002년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동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영선 외[2]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탈북민에 관한 연구는 2008년과 2009년에 43편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탈북여성에 관한 질적연구물은 2012년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51개 질적 선행연구물을 출판연도별로 보

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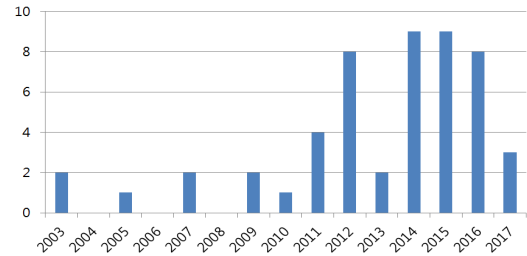


그림 1. 출판 연도별 탈북여성에 대한 질적 연구현황

선행연구[2]에서는 양적연구물을 포함한 동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북여성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질적 연구만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적응경험(13편)과 어머니로서의 경험(12편)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북한 체제와 전쟁에 대한 경험(6편), 일/직업/고용 경험(6편), 정신적인 충격을 어떻게 극복 및 성장과 회복탄력성의 경험(5편), 중국에서의 삶에 관한 연구(4편),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3편), 그리고 심리적 불안함을 치료하는 과정과 효과에 관한 연구(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51개 질적 선행연구물을 연구 주제별로 범주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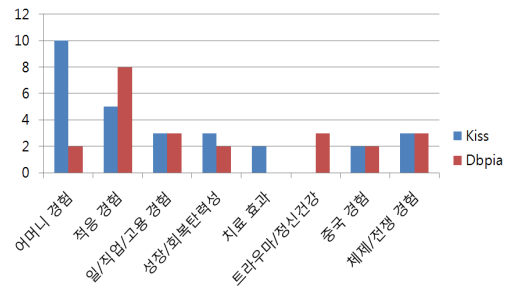


그림 2. 데이터베이스별, 주제별 탈북여성에 대한 질적 연구 분류

##### 2. 내용분석결과

내용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도덕적 손상에 관한 문헌들을 토대로 만든 분석틀을 이용하여 도덕적 손상의

하위개념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등장한 횟수를 단순히 정량적으로 찾아 본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감정에 관한 것으로 불안, 우울, 분노, 슬픔, 짜증의 순으로 나타났고, 총 분석 대상인 51개의 선행연구물에서 감정에 관한 단어는 총 260회 등장했다. 그리고 영성과 관련된 단어들로, 신앙, 믿음, 도덕성, 삶의 의미 등을 잃었다는 내용인 의미상실, 혼란, 그리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82회 영성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등장한 단어는 도덕적 손상에서 매우 중요한 하위 개념으로 강조되는 인지관련 단어들이었다. 자기중요를 제외하고 죄책감, 자책, 그리고 부끄러움의 순으로 총 71회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동관련 표현은 총 21회 등장하였고 그 중 폭력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며 위축이나 자기고립의 표현만 몇 차례 등장했다. 1단계 내용분석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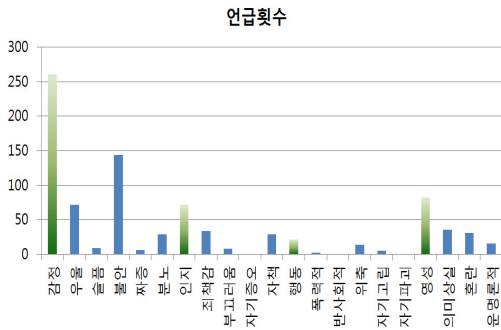


그림 3. 1단계 내용분석 결과

다음 2단계 내용분석으로, 연구결과 부분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도덕적 손상과 회복에 관한 내용을 우선 추출해 내었는데, 1단계 분석 시 표시해 놓은 도덕적 손상의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의 전후 맥락에 특히 집중하여 개방코딩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 51개 선행연구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도덕적 손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전후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경험과 맥락 속에서 도덕적 손상으로 해석할 만한 현상들이 서술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범주 간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도덕적 손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맥락으로 크게 두

범주로 ‘정체성 부정’과 ‘가족 해체’로 드러났다. 그리고 도덕적 손상을 이겨내는 혹은 맞서는 노력으로서의 ‘정체성 재구성’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1) 정체성 부정

도덕적 손상은 누군가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른 본인, 그리고 그러한 일을 목격했거나 막지 못한 방관자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서, 인지, 행동, 그리고 존재론적 믿음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한 상태이다[14-17]. 북한을 이탈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조국을 버린 배신자, 범법자”[42, p.14], “나라를 배반”한 행위[50, p.163]를 저지른 ‘배신자’(turncoats)[33, p.472]로 인식된다는 점에 있어서 탈북 결심 자체는 도덕적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탈북여성들은 다음의 서술과 같이 스스로를 범인 혹은 범죄자라 부르고 있다.

“내 같은 거는 범인이죠. 비법으로 도망해 갖구 이렇게 와서 누기 시키는 일도 아이고, 내 절로 모험해서 왔으니까나. 나는 범죄라면 범죄구, 잡아가서 나를 죽여도 나는 말 못한 이런 처지란 말임다.” [42, p.15, 참여자 2]

이러한 맥락 속에서 탈북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한민족이며 동족인 한국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받아들여지면, 그간의 배신자나 범법자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한민족’이나 ‘동족’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 받는다는 것은 도덕적 손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배신’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한국 가면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어쨌든 한국 가면 우리가 조국과 같으로 한데 그 나라 선민으로, 공민으로 돼두,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43, p. 240]

“목숨을 걸고 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겪어 왔던 모든 스트레스나 모든 어떤 일신상의 모든 문제들, 모든 복합적인 그 문제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순간이면 저희들은 그냥 다 풀리는 걸로 기대를 가지고 와요. 막연한 기대죠.” [35, p.210, 참여자 7]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기대하고 굳게 믿고 있던 ‘동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25]. 이들은 한민족이라 굳게 믿어왔던 사람들에 의해 언어나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차별과 무시와 직면하게 된다. 동족이라는 정체성은 고사하고, 북한에서 고위층 자제라던가 체조선수 혹은 고등중학교 선생님의 정체성[55, p.109, 참여자 D와 G][65, 참여자 6], 의사로서의 정체성은 ‘간첩’[32, pp.192-193, 참여자 이연아, 리연]이거나, ‘북에서 온 가난한 사람’[77, p.51, 참여자 6], 혹은 ‘우리 세금으로’ 사는 존재[65, p.399, 참여자 1]로 탈바꿈되어 버린다. 이러한 경험은 도덕적 손상으로 인한 주된 감정적 변화인 분노, 불안, 슬픔, 우울의 감정을 일으키며, 이러한 감정적 변화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 시키는데 북한 사람인가 알아서 일도 골라서 일도 힘들고 그런거 시키고, 왕따 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네...그런걸 느끼고.. 그런데서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그리고 제가 분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면접을 봤는데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서...다른 사람 열 명 중에서 다 합격인데 나 하나? 불합격 놓더라고요. 북한사람이란 얘기 듣고...북한사람은 안 쓴대요.” [35, p.213, 참여자 2]

“대학 졸업하고 일 좀 하고 있는데, 아직도 탈북자라 해서 자꾸 이리밀고 저리밀고 일케 하는데 열 받아요.” [62, p.1510, 참여자 C]

“자기보다 아래인 아이들이 뭐 알려주는 게 그렇게 자기를 깔보더래요...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껄잡하게 하고...(중략)...야, 내가 너보다 못해서 이 땅에 와

서 이렇게 수모 받는가, 정치, 정치가들을 잘못 만나서 나라가 못 살아서 여기 와서 내가 그러지 내 너보다 못한 게 뭐인가 하고 그 다음에 막 대단하게 싸움 했대요.” [35, p.214, 참여자 1]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리라는 기대는 하나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남한에 오니 나는 외국인과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77, p. 50, 참여자 7]. 결국 자신의 언어, 표현 방식, 그리고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은 도덕적 손상의 현상 중 인지변화인 부끄러움과 연결되며, 부끄러움은 행동의 변화 중 사회적 위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음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억양이 다르구, 또 여기서는 외국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리해하기 힘들죠. 내가 말하게 되면 남들이 알아들어요. 아, 어데서 오셨나고, 그래서 쟁피해요.” [60, p.1084, 참여자 7]

“학부모 모임은 제가 의식적으로...(중략)...시간이 있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엄마는 이북 사람이라더라, 그러면 애들이 다 알고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55, p.116]

“학교 담임 선생님 이외에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 우리 아이는 지금 완전 남한 애인데. 지금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축구부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주장 엄마로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 말투 때문에 북한에서 온게 알려지게 되니. 그걸 가장 조심하게 되죠. 애는 학교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지거나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라.” [68, p.30, 참여자 11]

탈북여성은 엄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사람이야. 중국 교포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북한 국민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이들은 조선족과 동일하게 인식되

는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기도 한다[25].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라면 솔직히 말해 중국 조선족보다도 더 못하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67, p.139].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결코 같은 한국 국민으로 보지 않음을 매일 일상에서 느끼며 구사일생으로 얻어낸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항상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분이세요? 하면 갈등을 때려요. 우리 말하는 거는 어떻게 알아듣는지. 말하는 투를 보고 우리를 한국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포라 하지. 어디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나는 이탈주민인데. 국적은 한국국적. 도대체 어디 사람이라 해야 되지? 하는 그게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25, p.96, 참여자 C]

이렇듯 탈북여성은 북한을 이탈하면서 ‘배신자’라는 정체성을 안고 남한에 입국하면서 ‘동포’라는 정체성으로 탈바꿈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에서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함을 경험한다. 이러한 남한 삶에 가졌던 기대와 현실 간의 캐리는 도덕적 손상으로 인한 주된 심리적 변화인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지속되는 ‘정체성 부정’의 경험은 도덕적 손상으로 인한 인지의 변화인 부끄러움과 행동의 변화인 사회적 위축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 인지의 변화, 행동의 위축 등은 지역사회에 그들을 향한 배제로 인해 재강화 되고 있다. 결국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의 원인이 되는 주된 맥락인 정체성 부정의 현상은 종국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걸림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여성이 도덕적 손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첫 지점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임을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 가족 해체

많은 탈북여성들은 탈북의 과정 속에서 가족의 해체와 새로운 가족 형성, 그리고 다시 분리됨을 경험한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가부장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주

의 국가이다”[79, p.144].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상인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나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은 남성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순종적인 아내이자 부모 공대를 잘하는 여인으로 그려져 있다[26]. 북한은 혁명의 역군으로 여성을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가정 내 성별분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어머니 역할과 아내 역할을 강조하는 교양학을 통해 전통적 성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79]. 북한의 국가가부장제는 여성들의 이중노동, 즉 돌봄노동 뿐 아니라 가족부양의 책임까지 여성에게 지우면서 지속, 강화, 유지되어 왔다[34].

탈북여성은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고, 남편에 대한 반항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64, p.154]. 북한의 노동신문은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의 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6]. 이러한 북한체제가 만들어 낸 여성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은 탈북 여성은 남편을 잘 따르고 자식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처럼 건강은 안 좋아도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것, 가족에 대한 것, 이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큰 좋은 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이 서로 결합되어야 재밌고 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66, p.60, 참여자 4]

“여자가 혼자 있게 되면...(중략)...남편이나 가족이 있다고 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으로 보죠.” [72, p.213, 참여자 1]

그러한 가족 중심적 사고,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탈북 과정 중에 결혼 생활을 혹은 가족을 지키지 못한 현실은 탈북여성 스스로 ‘철없는 엄마’[26, p.178], ‘나쁜 엄마’[26, p.185]라고 인식, 혹은 ‘내가 인간인가?’[71, p.171]를 자문하게 할 정도이다.



가족 해체의 경험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점철된 도덕적 손상으로 인한 인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내가 진짜 남편이라고 믿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남편은 00이 친아빠였구나. 그런 사람을, 내가 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중국으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매우 힘들죠.” [60, p.1086, 참여자 4]

“일단은 북한에 가정이 하나 있었잖아요? 탈북을 했어요...그럼 중국에 가정이 하나 생겨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중국에 가정이 있었다고 말하기를 싫어해요...(중략)...이거 자체가 이미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처가 되고...(중략)...북한여자라고 산다는 거를 좀 수가 깎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대요” [35, p.215, 참여자 7]

“제가 남한에 와서 대학에도 다니고 공부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기쁘게 웃다가도 자식 생각이 나면 마음이 울적해요. ...(중략)... 그걸 떼어놓고 살아간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책임을 다 못하고 죄를 짓는구나 생각. 나는 어떻게 자식 둘을 북에 하나, 중국에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가. 내가 인간인가? 그런 마음이, 돌덩이가 마음에 들어 있어요.” [71, p.171, 참여자 4]

자식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죄책감 또한 자주 등장한다.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나면 뼈저리는 그리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을 정도로 편안함을 거부, 자책, 자학의 담금질을 반복하기도 한다[36].

“엄마라는 것 생각하면 항상 그저 미안하고, 제가 28살에 중국에 나왔는데, 제가 효도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침묵 후 눈물) 그런 못된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여기처럼 뭐 옷 한 벌 해준 적도 없구요, 밥 한끼 뭐 따뜻하게 해 준 적도 없구요.” [67, p.136, 참여자 2]

“처음엔, 안 모시고 왔을 때는, 맨날 생각만 하면 미치겠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나 않을지 걱정을 했는데...(중략)...중국에서 꿈에 아버지가 보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을 거라고 맨날 울고, 아버지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68, p.30, 참여자 3]

“조금 편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깐 자꾸 활동량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책감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올 때는 결국은 내가 좀 가끔 피곤하고 그러면 내 몸도 좀 살피고 쉬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책감이 오니깐 못 쉬는 거죠.” [36, p.453, 참여자 송이]

가족 중심적 사고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영향을 받은 탈북여성들은 ‘가족 해체’의 경험에서 엄마, 아내,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손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인지의 변화이다. 인지의 변화 중 특히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존재론적 의문과 믿음 상실로 이어지면서 자살시도로[17] 이어지기도 하므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현상이다.

지금까지 탈북여성들이 탈북 전후 과정에 대한 서술 속에서 경험했을 도덕적 손상의 흔적들을 탐색해 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이들의 탈북 경험과 한국 적응의 경험은 도덕적 손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동족이라 믿었던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과 무시는 분노와 불신을 낳고, 생때같은 자식을 떼어 놓고, 부모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 드렸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감수하며, 구사일생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자격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전혀 그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서술이 모두 도덕적 손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도덕적 손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한 탈북 과정에서의 인신매매에 대한 서술에서 조차 도덕적 손상과 관련이 있는 그 어떠한 단어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던 연구물들이 있었다. 도덕적 손상의 근거를 발견하고 그 맥락을 읽어 내려는 두 번째 분석 단계를 마친 후에는 도덕적 손상이 있을 법한 상황에서 예측과는 전

혀 다른 서술이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하는 정반대되는 사례 찾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이들의 끊임없는 ‘정체성 재구성’의 노력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는 주된 힘이 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 3) 정체성 재구성

탈북 여성,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조선족 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을 이탈 혹은 이주 과정에서의 폭력과 트라우마의 피해자이자 시혜적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24]. 그러나 이들은 차별과 수모에 결코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물지 않는다. 대동한 동족,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거부당할 때 “내가 너보다 못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수모 받는가...(중략)...내 너보다 못한 게 뭐인가”[35, p.214, 참여자 1]를 끊임없이 되물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 되찾기의 노력은 다양한 질적 연구물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직접 인용문을 통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현상에 집중하여 해석한 연구는 이희영[27]의 연구가 유일했다. 이희영은 탈북여성들이 주어진 수동적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초국적 이주자의 정체성’이자 ‘변위적 정체성(transpositional identity)’이라 명명하여[24, p.6] 탈북여성을 주변적 존재가 아닌 강력하고 대안적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도덕적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신 매매의 경험이 결코 PTSD나 도덕적 손상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던 탈북여성들의 서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저 무작정하고 강을 건너서 갔으니까...(중략)...옷도 갈아 입히고 무슨 뭐 하더니...(중략)...우리 삼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길을 떠나가지고는 그냥 결국은 팔렸죠. ...(중략)...오던 길을 기억해가지고 다행히 또 거기에서도 하룻밤 만에 또 도망을 쳤어요. ...(중략)...나는 중국에 살면서 솔직히 중국에 그 있던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미안할 정도예요. 내 때문에 돈을 팔아서 데려갔다가 내가 또 달아나고 그 래가지고 돈만 팔고, 솔직히 그 갔던 사람들은 잘사

는 사람 없었거든요. 다 시골이고 농촌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인데...(중략)...그 사람들 생각해보면 지금 불쌍하죠. ...(중략)...진짜 자기 사람처럼 받아 들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솔직히 내 마음을, 마음을 열어, 열자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달아났으니까 미안하죠.” [27, p.18-20]

“나가 스무살인데 육십 넘은 할아버지한테 팔리고, 안그럼 장애인한테 팔리거든요. ...(중략)... 그런 생활 하다가 도망칠려면 매를 맞고, 또 개처럼 천대받다가 또 도망치다 잡히면 그 집 형제들한테 맞고 또 도망치다 잡히면 맞고. 우리는 그냥 성 노예지요. 성 노예. 잡혀서도 우린 중국 공항에서 잡혀서도 입산 부인데도 그 사람들은 성추행을 하는 거야.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 성추행 하는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사람 표현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정신병 안걸린거 이렇게 된 것까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25, p.123, 참여자 C]

탈북 경험은 곧 트라우마이며 이는 곧 개인의 정신병리와 직결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탈북여성을 바라보는 중심 관점이라면, 본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에서 보석처럼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정반대되는 사례로서의 변위적 정체성 확립의 노력은 탈북여성의 회복탄력성의 근거이며, 이는 곧 도덕적 손상으로부터의 예방 개입과 회복을 위한 개입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한국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중국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뭘 해서든 살 수가 있고, 내가 미국에 간다? 가서 사는 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중국에서의 삶의 경험, 남한에서의 삶의 경험, 그런 것 때문에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61, p.182, 참여자 6]

“이제까지의 일어났던 경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는 멋진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

각이 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닥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41, p.98, 참여자 3]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으로 인해 세상을 다시 믿지 못할 곳이라는 인식 체계를 만들어 내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도덕적 손상의 주된 인지변화와 존재론적 믿음변화의 현상이다. 그런데 인신매매를 경험하면서도 주어진 현실에 무기력하게 수긍하는 수동적 피해자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개척하는, 그래서 자신을 대상화하고 매매 하려던 사람들을 향한 미안한 감정을 가질 여유까지 생기는 현상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주체성 회복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북한 체제에 의한 피해자, 탈북 과정 중 트라우마의 피해자, 한국 입국 후 복지수혜자 등 한국이 부여하는 무기력한 정체성으로 인해 분노나 위축으로 점철되는 도덕적 손상의 근거와는 정반대되는 사례로 등장한 주체어는 지역 봉사였다. 지역에 자신들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원봉사단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수혜자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지역 주민으로 이들의 정체성은 재구성되고 있다.

“남한에 와서 어떻게 계속 도움만 받고 살겠냐, 우리도 이제 이렇게 헌신을 좀 해보자, ...(중략)...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정 이런데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40, p.148]

“지식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내 육체라도 동네 노인들에게,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북한 두부 밥을 대접해서 우리 북한 문화를 교류하고 마음이 소통하니까, 지금은 그런 편견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61, p.186, 참여자 1]

“진짜 어울리니까. 송편하면서 이제 며칠 아니면 우리 추석인데 갈 데를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갈 데도 없다 하니까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진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했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솔직히 다 같은 민족이라. 이런 느낌도 받고, 진짜 섞여 보니까 똑같고, 문화도, 음식 문화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똑같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서로가 정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25, p.102, 참여자 L]

지역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탈북여성의 정체성 재구성의 주된 맥락으로 발견되었다. 앞서 발견된 도덕적 손상의 원인이 되는 맥락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탈북여성들의 도덕적 손상을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진 탈북여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기본 토대로 탈북여성 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탈북여성들 스스로 존재론적 가치를 찾아나가게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탈북여성에 대한 선행 질적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거주하는 탈북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물 속에서 도덕적 손상의 근거 및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탐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 13일까지 출판된 학술지 질적연구 논문을 ‘탈북 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인 KISS와 DBpia에서 검색하고 최종 선정된 총 51개의 선행 질적연구물을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탈북여성에 관한 학술지에 발표된 질적연구는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2년부터 탈북여성의 비율이 탈북남성의 비율보다 높아졌음을[1] 감안했을 때, 질적연구자들의 탈북여성에 대한 탐색적 관심이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비해 상당히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탈북여성에 관한 질적 연구 주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적응경험(13편)과 어머니로서의 경험(12편)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북한 체제와 전쟁에 대한 경험(6편), 일/직업/고용 경험(6편),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극복 및 성장과 회복탄력성의 경험(5편), 그리고 중국에서의 삶에 관한 연구(4편),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경험(3편), 그리고 심리적 불안함을 치료하는 과정과 효과(2편)에 대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내용분석의 기초 작업은 도덕적 손상에 관한 국외문헌들을 토대로 만든 분석틀을 이용하여 도덕적 손상의 하위개념에 포함되는 단어들에 등장한 횟수를 정량적으로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도덕적 손상으로 인한 감정적 변화인 불안, 우울, 분노, 슬픔, 짜증은 총 260회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앙, 믿음, 도덕성, 삶의 의미 등을 잃었다는 존재론적 믿음의 변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총 82회, 그리고 도덕적 손상에서 매우 중요한 하위 개념으로 강조되는 인지관련 단어들이 죄책감, 자책, 그리고 부끄러움 등이 총 71회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축이나 자기고립 등 행동관련 표현은 총 21회 나타났다.

셋째, 질적 내용분석을 위해 선행 질적연구물의 결과 서술 부분을 개방 코딩하고, 도덕적 손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 범주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손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맥락은 크게 두 범주로 '정체성 부정'과 '가족 해체'가 나타났으며, 도덕적 손상을 이겨내는 혹은 맞서는 노력으로서의 '정체성 재구성' 과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을 이탈한다는 자체가 '배신자'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탈북여성들에게 도덕적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탈북여성들은 한국 입국 이후에 배신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동족'의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입국 이후에 오히려 차별과 무시에 직면하게 된다. 탈북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위축 및 타의에 의한 사회적 배제 속에서 부정적 정서와 인지의 변화가 발견되어 탈북여성이 경험하는 '정체성 부정'은 도덕적 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 된다. 그리고 많은 탈북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가정의 해체와 새로운 가족 형성, 그리고 다시 분리됨을 경험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가족 중심적 사고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탈북여성은 가족 해체의 경험에서 엄마, 아내,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인지의 변화는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17]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들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탈북여성은 도덕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체성 부정'과 '가족 해체'의 경험 속에서도 수동적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주어진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끊임 없이 도망치고 개척함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주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수혜자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인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탈북여성의 '정체성 재구성'의 노력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도 있고,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여성의 도덕적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적 손상에 대한 개입의 기본 골자는 문제를 개인의 정신병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맥락 간 상호작용 속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13][17].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물이 트라우마로부터의 치료적 개입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 함의는 비병리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탈북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가족해체, 재결합, 그리고 새로운 가족 형성이라는 비전통적인 성역할 경험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믿어왔던 가부장적이고 가족 중심적 사고와 전통적 성역할을 기준으로 가족해체의 경험을 해석한다면 자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착된 믿음의 내용을 탐색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도덕적 손상을 일으킨 주체를 용서함으로써[17],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80]. 이를 위해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이나 심리사

회적교육을 제공하여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관점, 그리고 강점중심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

도덕적 손상에 대한 개입은 단순히 인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융통성을 확장시키는 데 개입의 초점을 맞춘다[81]. 이에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여성들이 새로이 입국한 탈북여성의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동료상담프로그램 운영은 도덕적 손상에 의미 있는 개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탈북여성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축 및 배제와 차별 등에 주체적으로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여 개인과 사회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불평등과 억압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늘려나감으로써, 탈북여성의 도덕적 손상을 예방 및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코드라마나 소시오드라마[18], 그리고 문학치료[47]와 같은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키우고 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탈북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탈북여성들을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탈북민 관련 기관이 가진 탈북민에 대한 관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탈북여성을 직원으로 채용 또는 이사진 혹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등을 통해 탈북여성 권익 및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탈북여성의 주체성 확립 및 정체성 재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도덕적 손상에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탈북여성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적대적인 태도는 탈북여성들이 한국사회로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족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탈북여성의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탈북여성

에 대한 이해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대상 탈북여성 인식개선 및 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한 탈북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멘토-멘티 만들기 등 지역사회 연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탈북여성 간의 상호교류 및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것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18]. 그러므로 탈북여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의한 피해자, 한국 입국 후의 복지 수혜자 등 수동적 피해자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주체적인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러한 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탈북여성들의 봉사모임이나 지역행사 참여 등이 주동적으로 결성되고 유지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기관 및 탈북여성 대상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탈북여성들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판단을 가미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적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자기점검을 통한 판단중지 혹은 괄호 치기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물 중에는 탈북여성의 적응 과정 중 발생하는 혼인, 동거, 노래방 도우미, 매춘 등의 생존전략이 ‘일탈[35 p.210]’이나 ‘타락한 생활[32, p.186]’과 같은 부정적 용어로 해석되고 강조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연구자의 도덕적 판단이 드러나는 해석은 탈북여성들의 도덕적 손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연구결과를 접하는 독자들의 탈북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탈북여성에 대한 선행 질적 연구물 속에서 도덕적 손상의 근거 및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회복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한 1차 자료 분석 연구가 아닌, 선행연구물들의 연구결과 부분을 분석했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탈북여성들에게 직접 도덕적

손상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질적연구를 재해석하고 탈북여성의 도덕적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참고 문헌

\* 분석 대상인 탈북여성에 관한 질적 연구물 표시

[1]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제56권, pp.147-193, 2011.

[3] 손영미, 강숙정, 박정열,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0권, 제1호, pp.19-44, 2014.

[4] 최빛내, 김희경,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1호, pp.195-212, 2011.

[5] 김재엽, 류원정, 김지민, “탈북여성의 생활사건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 외상경험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46권, pp.85-107, 2014.

[6] 김재엽, 최권호, 채지훈, 황현주, “탈북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2호, pp.33-56, 2013.

[7] 김희경,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7권, 제4호, pp.535-558, 2012.

[8]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3호, pp.459-481, 2016.

[9] 강숙정, 김은미, 손영미, “하나원 인간관계셀프과워 프로그램이 여성탈북민의 정서, 사회적지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37-149, 2016.

[10] 김승현, 최빛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제4호, pp.533-548, 2013.

[11] 조하나, 최연실,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족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1327-1345, 2013.

[12] 정유진, 최빛내, “탈북에서 입국까지의 기간 및 북송경험이 탈북 여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2권, 제1호, pp.47-67, 2017.

[13] 심우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범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 맥락적 접근으로의 도덕적손상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제44권, pp.167-222, 2017.

[14] J. Shay, *Achilles in Vietnam: Combat Trauma and the Undoing of Character*, Scribner, 1994.

[15] J. Shay, “Moral Injury,” *Psychoanalytic Psychology*, Vol.31, No.2, pp.182-191, 2014.

[16] K. D. Drescher, D. W. Foy, C. Kelly, A. Leshner, K. Schutz, and B. Litz, “An Exploration of the Viability and Usefulness of the Construct of Moral Injury in War Veterans,” *Traumatology*, Vol.20, No.10, pp.1-6, 2011.

[17] B. T. Litz, N. Stein, E. Delaney, L. Lebowitz, W. P. Nash, C. Silva, and S. Maguen, “Moral Injury and Moral Repair in War Veterans: A Preliminary Model and Intervention Strate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9, No.8, pp.695-706, 2009.

[18] M. Levinson, “Moral Injury and the Ethics of Educational Injustice,”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85, No.2, pp.203-300, 2015.

[19] J. G. Tillma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uicide: Moral Injury and the Mysterious Object in the Work of Walker

- Percy,” JAPA, Vol.64, No.3, pp.541-547, 2016.
- [20] A. Kleinman, *What Really Matters: Living a Moral Life Amidst Uncertainty and Danger*, pp.1-26,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21] W. Haight, E. Sugrue, M. Calhoun, and J. Black, “A Scoping Study of Moral Injury: Identifying Directions for Social Work Researc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70, pp.190-200, 2016.
- [22] W. Haight, E. Sugrue, and M. Calhoun, “Moral Injury among Child Protection Professionals: Implications for the Ethical Treatment and Retention of Worke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82, pp.27-41, 2017.
- [23] W. Haight, E. Sugrue, M. Calhoun, A. Krentzman, and J. Black, “Moral Injury in the Context of Child Protection,”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21<sup>st</sup> Annual Conference*, p.239, 2017.
- [24]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2012.
- \*[25] 성경현, “탈북여성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중독화된 낙인(ethnicized stigma)과 탈북여성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 *한국가족복지학*, 제53호, pp.79-115, 2016.
- \*[26] 이화진,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1권, 제3호, pp.173-211, 2011.
- \*[27] 이희영,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제1호, pp.1-45, 2012.
- [28] 김현경, “북한이탈주민의 고문으로 인한 외상 후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3호, pp.81-106, 2011.
- [29] 강차연. “중국내 거주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여성연구논총*, 제21권, pp.39-53, 2006.
- \*[30]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pp.235-264, 2017.
- \*[31] 박경숙, “탈북이주자 생애사에 투영된 집단적 상흔과 거시 권력구조,” *경제와 사회*, 제95호, pp.288-332, 2012.
- \*[32]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제1호, pp.161-204, 2011.
- \*[33] G. S. Yoon and A. M. Park, “Acculturation as a Frustration-Negotiation Cycle: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22, No.4, pp.462-476, 2016.
- \*[34] 김경희, 강은애, 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제1호, pp.131-164, 2016.
- \*[35] 김기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9권, 제1호, pp.201-225, 2015.
- \*[36] 김광호, “불안증상을 가진 탈북여성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명상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75권, pp.429-466, 2015.
- \*[37] 김성경, “‘젠더’화된 ‘장소’로서의 북·중 경계지역: 북한이탈여성의 경험과 현상학적 인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제2012권, 제6호, pp.191-209, 2012.
- \*[38] 김성경,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한국사회학*, 제47권, 제1호, pp.221-253, 2013.
- \*[39] 김성남, 양옥경,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제12권, 제1호, pp.5-37, 2015.
- \*[40] 김영순, “인친 논현동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 *로컬리티 인문학*, 제12권, pp.121-154, 2014.
- \*[41] 김유정, “북한이탈여성의 부모화 경험,” *사회과학연구*, 제40호, 제2권, pp.77-108, 2014.
- \*[42] 김태현, 노치영,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41권, 제8호, pp.1-17, 2003a.
- \*[43] 김태현, 노치영,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41권, 제12호, pp.229-243, 2003b.
- \*[44] 김현경, “탄력성(resilience) 관점에서 조명한 북한이탈여성의 생애 연구: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젠더,” *젠더와 문화*, 제4권, 제2호, pp.7-36, 2011.
- \*[45] 박성정, 오은진,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경험과 개선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4권, pp.135-152, 2012.
- \*[46] 박정란,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 연구: 북한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pp.153-180, 2007.
- \*[47] 박재인, “이주와 성공의 고전서사를 활용한 탈북민 대상 문학치료 사례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41권, pp.335-370, 2016.
- \*[48] 배진형, 박미현, “여성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60-74, 2016.
- \*[49] 성정현,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117-131, 2014.
- \*[50] 신난희, “탈북여성 구술생애 깊이 읽기: 두 탈북여성의 중요 생애사건과 사회적 갈등 분기점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50권, pp.153-182, 2015.
- \*[51] 신희정,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제1호, pp.161-194, 2017.
- \*[52] 안태운,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0권, pp.181-216, 2014.
- \*[53] 안태운,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0권, pp.235-274, 2015.
- \*[54] 안태운, “전후 북한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제24권, pp.187-219, 2016.
- \*[55] 염유식, 김여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제45권, 제2호, pp.91-129, 2011.
- \*[56] 이기영, 김민경, 백정원, “중국 출생 자녀를 둔 한국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제3호, pp.213-240, 2014.
- \*[57] 이기영, 김민경, “중국출생 무국적 자녀와 동반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52권 pp.209-239, 2015.
- \*[58] 이기영, 백정원, 김민경, “이주의 사회과학적 고찰: 북한이탈여성의 ‘돌봄과 일’에 관한 연구-제3국출신 아동을 둔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60권, pp.4-23, 2014.
- \*[59] 이민영, 김현경,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 극복 체험: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5권, pp.525-554, 2007.
- \*[60] 이숙영, 이동혁, 조혜연, 김경미, 김효정, “북한이탈여성의 외상후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제4호, pp.1073-1102, 2016.
- \*[61] 이은주, “북한이탈여성들의 직업교육 경험과 취업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7권, pp.173-189, 2017.
- \*[62] 이현주, 오보람, 이은혜, “북한이탈여성노인의 남한사회 정착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501-1520, 2009.
- \*[63] 이화진, “이주공간의 변화에 따른 탈북여성의 모성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한국여성학*, 제30권, 제3호, pp.161-200, 2014.
- \*[64] 임영호, 강주현, 이동희, “새터민 여성들의 드라마 시청과 젠더 담론 수용,”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3권, pp.143-176, 2012.



\*[65] 장정은, 최정숙,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6권, 제4호, pp.375-419, 2015.

\*[66] 진주람,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사회적자원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4호, pp.47-72, 2016.

\*[67] 정현숙, “북한이탈여성의 어머니 됨 경험,” 질적연구, 제15권, 제2호, pp.130-145, 2014.

\*[68] 조영아, 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제1호, pp.17-35, 2005.

\*[69] 조영아,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 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1호, pp.197-222, 2012.

\*[70] 조영주,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전략과 담론적 수행: 어머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지, 제19권, 제1호, pp.309-338, 2015.

\*[71] 한미라, “탈북여성의 초국가적 어머니 경험,” 다문화와 평화, 제9권, 제2호, pp.160-178, 2015.

\*[72] 한순옥, 이기숙,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 여성의 결혼 의미와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4권, 제2호, pp.197-233, 2014.

\*[73] 한인영, 홍선희,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연구, 제25호, pp.75-93, 2012.

\*[74] 홍나미, 이인정,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1호, pp.307-344, 2010.

\*[75] 홍승아,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제2호, pp.173-205, 2013.

\*[76] 황선영,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배제 요인,”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349-373, 2009.

\*[77] H. K. Kim, “A Study on the Perceived Growth after Adversity among North Korean Women Refugees: Application of Grounded Theory Method,”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Vol.27, No.1, pp.33-66, 2012.

[78] H. F. Hsieh and S.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5, No.9, pp.1277-1288, 2005.

[79] 진미정,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5권, 제1호, pp.139-157, 2008.

[80] W. P. Nash and B. T. Litz, “Moral Injury: A Mechanism for War-Related Psychological Trauma in Military Family Members,” Clinical Child & Family Psychology Review, Vol.16, No.4, pp.365-375, 2013.

[81] D. Blinka and H. W. Harris, “Moral Injury in Warriors and Veterans: The Challenge to Social Work,” Social Work & Christianity, Vol.43, No.3, pp.7-28, 2016.

저 자 소 개

심 우 찬(Woochan Shim)

정회원



- 2004년 10월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사회복지전공(Ph.D)
- 2008년 9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여성복지, 정신건강, 사회적 트라우마

이 순 민(Soon Min Lee)

정회원



- 2008년 12월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사회복지전공(Ph.D)
- 2009년 3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윤리, 시각장애인 복지, 탈북 여성의 복지